

가든 가드닝(Garden Gardening)

전 은 정
조경포레(주) 소장

1. Gardening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정원이란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문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정원이라는 것 자체를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다. 따라서 정원은 있으되 '정원을 가꾸는 문화(Gardening)'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바쁘게 살아가야하는 보통사람들에겐 나무와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는 것이 아마도 사치스러운 행위라 여겨졌을 것이고 더욱이 값비싼 조경수나 묘지를 지키던 식물로 채워진 바라보기만 하던 죽은 정원문화가 지배하였기 때문이리라. 진정한 'Gardening'은 죽은 정원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 찬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직접 정원사가 되어 나무와 꽃을 심고 채소를 기르고 하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웰빙족, 슬로우푸드운동, organic food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문화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는 현대인들에게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Gardening'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Gardening은 자연과 교감하는 즐거운 운동이기에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여 healing의 효과가 있고 특히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의 본성을 일깨워주므로 작은 환경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Gardening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그러면 정원의 범주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약 100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만 정원이라 할 것인가? 물론 정원(Garden)의 규모는 정원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되겠지만 'Gardening'은 행위이므로 규모나 소유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직접 해보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가 더 알맞을 것이다. 또 한 가지, Gardening을 위해서 반드시 땅이 있어야만 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 자연지반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 속에서 정원을 갖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식재지반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의 베란다(veranda), 건물의 옥상, 실내에도 정원은 가능하다.



하나로통신 옥상정원, 일산

청담동 개인주택A 베란다정원



청담동 개인주택B 베란다정원

롯데영플라자 실내정원

우선 간단한 Gardening을 위해 몇 가지 습득해야 할 것은 먼저 원예적 상식이다. 여기에서 Gardening을 위한 기초적 상식 즉 식물과 관련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식물은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식물을 사서 길러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물이 자라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몰이해로 그저 물만 열심히 주면 자라려니 하다가 식물이 죽어버리면 역시 식물을 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기피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므로 먼저 식물 생육환경의 메카니즘을 알면 겁낼 것은 없다.

1) 토 양(흙)

토양은 의식주에서 주(住)에 해당한다. 식물이 건전하게 생육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리게 하는 데에 흙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흙에 씨를 뿌리면 잎이 나오기 전에 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물의 생육은 뿌리로부터 시작하고, 뿌리가 건전하지 않으면 꽃도 아름답게 피지 않으며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좋은 흙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기성이다. 뿌리는 공기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된다. 흙이 단단하여 입자 사이의 틈이 없게 되면 새로운 공기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남아서 뿌리가 질식하게 된다. 화분에 있는 흙의 통기성 개선을 위해서는 배수용토양(필라이트)과 부엽토(영양이 있는 흙)를 혼합하여 준다. 통기성이 좋은 토양은 공기 환기가 빨라 건조가 쉽게 되는 토양이다. 화분토양을 건조하기 쉽게 하려면 화분토의 양을 적게 한다. 다음으로 배수성(물빠짐)과 보수성(물을 함유하는 능력)이 좋아야 한다. 신선한 물에는 산소가 많은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물주기의 주요목적은 오래된 공기와 새로운 공기를 바꾸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배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재층이나 화분 바닥에 자갈이나 하이드로볼(입자가 크고 구멍이 난 돌)을 깔아 준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분갈이용 상토(원예용상토)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토양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2) 비료

비료는 의식주에서 식(食)에 해당한다. 식물이 안심하고 살 집이 완성되었다면 다음은 식사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화분에서 기르는 식물의 비료주기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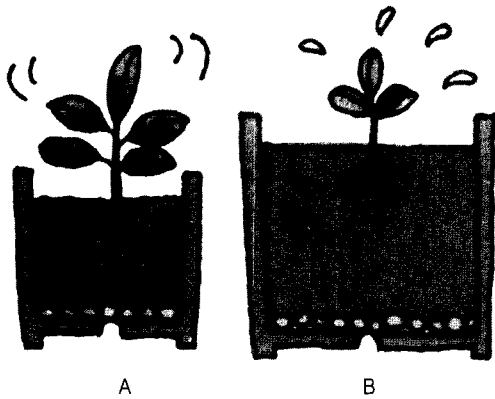
식물체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으며 수분을 제외한 부분은 92%가 탄소, 산소, 수소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공기나 물속에 있는데 나머지 약8%가 13종류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분식물의 경우 이것들을 사람이 주지 않으면 부족하게 되는 양분이다. 대부분의 식물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봄, 가을, 생육이 왕성할 때 한번씩 비료를 준다. 가정에서 쓰는 비료는 액체비료와 알갱이비료(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비료)가 있는데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즉시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액체비료 쓰면 된다. 화분에 심겨진 식물과 달리 외부 자연계에 있는 식물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는 떨어진 잎이랑 죽은 식물, 초식동물의 똥, 곤충의 사체 등이 미생물의 활동으로 분해되어 식물에 재이용되는 사이클이 성립되고 있으나 가정의 정원이나 화분의 식물은 깨끗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이 단절되게 된다. 특히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은 자유롭게 뿌리를 신장시켜 양분을 찾을 수가 없다. 비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를 해주면 식물은 몰라볼 정도로 건강하게 된다.

3) 화분(컨테이너)과 식물의 뿌리

화분은 의식주에서 마치 의(衣)와 같다. 옥상정원이나 실내정원 등은 모두 화분(컨테이너)에 심겨진 식물과 같은 인공 환경에 조성되는 것이다. 식물을 화분에 심어 가까이 두고 즐기는 것은 즐거움이다. 그러나 식물은 본래 땅에 뿌리를 뻗어 자라는 것이므로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죄이는 옷을 갈아입듯이 화분도 뿌리의 성장에 맞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꾸는 등 화분에 심게 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화분에 심겨진 식물은 보통 2년에 1회는 분갈이를 한다. 이유는 화분의 흙의 악화, 뿌리의 생육불량, 크게 성장한 식물과 화분과의 불균형 때문이다.

건조할 때마다 물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반복이 1년에 100회정도 일어나면 흙의 단립구조가 파괴되어 배수성과 통기성이 나빠지게 되어 뿌리가 생육하지 못하게 된다. 흔히 토양의 성분은 불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화분의 흙의 경우는 다르므로 분갈이를 할 때는 다시 새로운 원예용 상토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분의 크기도 식물과 관계가 깊다. 화분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뿌리가 너무 신장하여 접혀지면서 부패가 발생한다. 그 결과 지상부도 영향을 받아 성장이 둔화되고 식물의 옆 가장자리가 시들며 심하면 식물도 시들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큰 분은 뿌리의 양이 적으므로 빨아올리는 물의 양도 적어 흠이 쉽게 마르지 않아 뿌리 부패를 일으키게 쉽게 된다. 또한 분지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 뿌리의 양이 적고 약한 식물로 되어버린다. 기본적으로 뿌리는 화분의 벽에 부딪치면 거기서 분지하면서 자라는 성질이 있다. 작은 묘를 작은 화분에 심으면 빨리 분벽에 부딪혀서 뿌리가 분지하게 되어 뿌리가 분 전체에 배치가 된다. 이런 상태로 조금 큰 중간분에 옮기면 같은 모양으로 뿌리가 늘어나고 차츰 더 큰 분으로 옮겨 심어가는 것이 분갈이의 원리이다. 이렇게 해서 기른 식물은 뿌리의 양이 많으며 튼튼한 식물체가 된다. 화분 아래로 뿌리가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면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찼다는 신호가 된다.



- A 식물에 합당한 크기의 분
용도가 건조되기 쉽고 뿌리 신장이 좋다.
- B 식물에 비해 크기가 지나친 분
용도가 건조되지 않고 과습되므로 뿌리 신장이 나쁘다.

4) 물주기

자연 지반인 정원에 심겨진 식물은 일단 뿌리가 뻗으면 어지간히 건조하지 않으면 물주기가 필요 없다. 대지에 단단히 내린 뿌리는 모세관 현상과 지하수를 빨아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육에 필요한 수분은 식물자체의 힘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분(컨테이너)이나 인공지반은 대지와 격리되어 있으므로 땅속에서 물을 빨아올릴 도리가 없다. 게다가 토분은 표토뿐만 아니라 화분의 벽면에서도 수분이 증산되므로 건조가 빨리 일어난다. 흠이 건조할 때 인위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고사해 버린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 내부에도 planter가 만들어져있는데 이때 반드시 양질의 상토와 펄라이트를 7:3정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상정원이나 인공지반위에 조성된 정원의 경우는 물을 주는 데에 많은 인력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자동관수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식물

식물은 우선 나무와 풀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면 풀은 겨울을 맞으면 지상부가 죽기 때문에 줄기 안에 나이트를 만들지도 않고 비대생장을 계속하지도 않는다. 반면 나무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나이트를 만들고 비대 생장을 한다. 예를 들어 은행나무나 소나무는 해마다 그 줄기가 굵어진다. 하지만 해바라기 같은 풀 종류는 줄기의 비대생장이 없으며 줄기 속에 나이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겨울이 되면 지상부가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艸)이 겨울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그래서 정원을 관목이나 상록수로 채워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연을 장식 정도로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연은 변화한다. 변화되는 식물의 다양한 모습에서 자연의 신비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인간은 자연의 정원사가 될 수 있다. 비싼 나무 위주의 정원개념에서 벗어나 일년초, 다년초, 야생화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자. 고정관념을 깨고 정원의 변화와 미세한 진화를 느끼게 되는 즐거운 정원 만들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식물은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실내식물과 실외식물로 구분되어진다. 실내식물로는 관엽식물(주로 잎을 감상하는 식물)이 해당되어 열대식물이 대부분이다. 실외식물은 햇빛과 4계절의 온도 변화를 겪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로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식물들이다.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어정쩡한 공간으로 만약 창문으로 막혀진 샷시가 없다면 실외식물을 잘 기를 수 있으나 샷시로 닫혀진 베란다는 관엽식물이나 약간의 허브종류, 난 등으로 제한이 된다. 하지만 이들도 겨울에 베란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얼게 된다. 진정한 Gardening을 아파트에서 하고 싶다면 과감히 베란다의 샷시를 띄어내라고 권하고 싶다.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자. 나비와 곤충이 찾아들 수 있도록) 아파트 샷시는 우리나라에만 유독 존재하는 것으로 실내도 실외도 아니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일 것이다.

3. 건강에 좋은 식물 기르기 - 허브와 채소정원

정원에서 식물은 미적인 즐거움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 특히 식물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얼마전 TV 다큐에서는 식물에서 다량의 음이온이 발생하여 몸에 노화와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식물이 없는 사무실에는 음이온이 전혀 측정되지 않았으나 식물을 기르고 있는 사무실에서는 다량의 음이온이 측정되었다. 재미있는 비교로는 새들의 둥지는 나뭇가지와 이끼로 이루어지는데 어미새가 알을 낳아 새끼가 부화하고 둥지를 떠날 때까지 이끼가 살아있다고 한다. 이는 새들도 살아 숨쉬는 집에서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살아 숨쉬는 집에서 살고 있는지....

지난 해 이른 봄에 작은 허브정원을 만들어준 집의 아기가 아토피가 심했었는데 여름에 가보니 거의 나아진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아기 엄마는 아기랑 매일 작은 정원에 나와서 꽃도 만져보고 잎의 향기도 맡게 하고 오렌지 나무의 열매도 함께 따서 만져보고 잘라보고 했단다. 나는 믿고 싶다. 모든 정원은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모든 식물은 건강에 이로운 것인데 특히 허브식물은 피부건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어 권하고 싶다. 허브식물은 향기나 꽃도 아름답고 직접 이용할 수 있어서 키우는 재미가 더하다. 잎을 다 차로 마시거나 목욕할 때 아로마테라피 효과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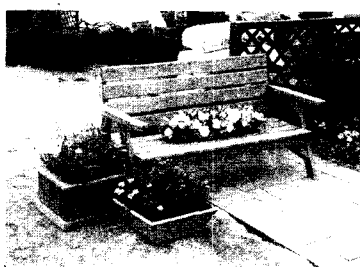
허브를 실내에서 키우려면 '수분과 신선한 공기, 따뜻한 햇빛'등의 3가지 조건을 잘 챙겨줘야 한다. 가정의 베란다나 사무실에서 키울 때는 햇볕이 4-5시간 정도 드는 창가에 두거나 하루에 16시간 정도의 형광등 불빛아래에 최대한 가깝게 둔다. 환기를 자주 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허브가 시들면 옥상이나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었다가 다시 실내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로즈마리, 세이지, 바질, 민트, 레몬밤, 차빌 등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내나 베란다에서 가능하다. 민트나 레몬그래스처럼 다습한 것을 좋아하는 허브도 있지만 대부분의 허브는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주 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허브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 컨테이너 가든을 만들어 보면 잎의 질감과 색상의 차이 등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아름답다.

가정에서 채소정원을 만드는 것도 권장한다. 늘 먹는 기본 채소류를 집에서 길러먹으면 작은 유기농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옥상은 채소를 기르기에 알맞은 환경이므로 버려진 옥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허브정원 : 영국 씨싱허스트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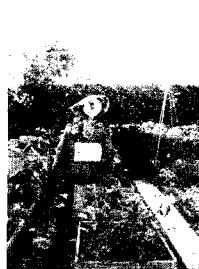
허브정원 : 고양꽃박람회



허브정원 : 청담동 개인주택



채소원 : 프랑스 베르시공원



채소원 : 미국

4. Gardening을 위해 할일

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든 만들 수 있고 작은 화분을 하나 기르더라도 Gardening을 위한 첫 발을 디딘 것으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 장소를 찾아보자. 단독주택의 규모가 있는 정원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일단 조성된 후에는 관리하면서 다양한 즐거움을 체득할 수 있다. 아파트의 베란다라면 화훼공판장이나 지방의 화훼도매시장에 가보면 건강한 식물들과 가위, 화분, 분갈이 흙, 비료, 물뿌리개 등을 파는 자재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여 만들어 볼 수 있다. 나무로 컨테이너 박스를 직접 제작해 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외국에서는 Garden Center가 있어 한 장소에서 식물부터 흙까지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원가꾸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장소가 하루 빨리 생기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정원에 관한 서적을 구입해 본다. 원예적 지식이 나열된 책도 좋지만 어떻게 Gardening을 하는가와 경험이 소개된 책이면 더욱 좋다. 외국서적에는 정원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Small Garden의 사례도 풍부하게 보여주니 원하는 것을 골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변변한 정원서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허브에 관한 책은 최근에 많이 등장했다. 정원가꾸기를 위해 몇 가지만 추천해보면 어린 자녀와 함께 정원을 만든다면 리네아시리즈의 '신기한 식물일기', '모네의 정원에서', '꼬마정원'을 함께 보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헤르만 헤세의 '정원일의 즐거움'도 읽어보자. 우리가 Gardening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지를 시처럼 설명한다. 임경빈 선생님의 '숫아라, 나무야'는 나무를 가장 쉽고 편안하게 습득할 수 있는 책이다. 색채, 향기, 풍수와 같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에 초점을 둔 '정원과 건강'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Gardening을 하면서 알게 되는 즐거움은 지식 너머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다산 정약용은 '꽃과 나무를 즐기는 것은 마음을 기르기 위함'이라 말한다. 그는 도시(서울)에 거처했을 때 직접 화분으로 만든 '죽관'이라 이름 지은 정원(요즈음의 베란다 정원 같은)을 만들었고 모름지기 은자의 거처에 어울리는 정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뜬세상의 아름다움', 정약용 지음) 여기에 나온 주옥같은 수필 중 내게 남아있는 글을 대신해서 'Gardening'에 대한 단상을 정리하고 싶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탐내는 마음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경이다.

발견의 환희가 없는, 그래서 평범하고 진부해진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의 형해일 뿐이다.

